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4-3호 (2024.02.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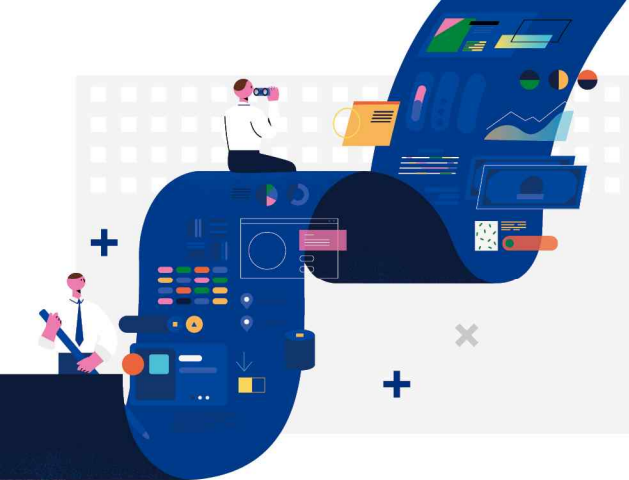
■ 이 슈

(산업) 인천 기업지원사업 운영 실적
및 시사점

■ 주요 산업 현황

(제조) 기계장비산업 시장 동향

■ 국내 정책동향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4-3호 (2024.02.09)

Cotents

I. 이 슈

(산업) 인천 기업지원사업 운영 실적 및 시사점 1

II. 주요 산업 현황

(제조) 기계장비산업 시장 동향 7

(부록) 주요 산업 경기지표 10

III. 국내 정책동향

(수출) 중기부, 수출 판로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 모집 11

(교통) 정부·지자체, 서민층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중교통 지원 협력11

(산업) 농식품부, 쌀 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발표 12

(교육)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고급인재 양성을 위한 특성화대학원 본격 확대 12

(경제) 착한가격업소 경제 시 할인 혜택 주는 카드사 확대 13

(금융) 서민·실수요자에 혜택 집중한 새로운 보금자리론 출시 13

(산업) 정부, 산업단지 디지털화·저탄소화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14

(금융)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전세자금대출까지 확대 운영 14

연구진

최태림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민규량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상민경	인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 추진단 연구원
류동훈	인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 추진단 연구원
박엄지	인천테크노파크 기획평가팀 과장
유광민	인천테크노파크 책임연구원

산업

인cheon 기업지원사업 운영 실적 및 시사점

+

#정책 #기업지원사업 #수혜기업 특징 #사업 성과

- 중소기업은 국가 경제와 산업혁신의 핵심 주체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중앙정부 및 각 시도 지자체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꾸준히 확대·시행
 - 중소·중견 기업은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생산활동을 촉진하고 시장 내 경쟁을 통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국가 및 지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기술, 인력교육, 공정혁신 등 다양한 부문에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¹⁾
 - 인천시 역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및 투자를 과감히 확대 중으로, 최근에는 자금·수출·입지 등 인프라 측면의 지원을 넘어 기획·컨설팅·기술개발 등 기업혁신을 촉진하는 소프트웨어적 부문도 지원
 - 향후에도 정부 및 지자체의 중소·중견기업 지원사업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기업지원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지역 전체 관점에서의 기업지원사업 현황 및 실적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
 - 이에 본 고에서는 인천테크노파크²⁾의 기업지원사업 데이터를 활용해 지원사업의 규모와 유형, 지원 효과 및 수혜기업 분포 등의 현황을 분석하여, 인천시 기업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
- [표 1] 기업지원사업 유형 및 예시

대분류	세분류	예시
경영지원	자금	• 융자, 펀드, 대환대출, 보증·공제·채권 보험료, 직원기숙사 임차료 등
	입지·공간	• 입주공간 대여, 임대료 지원, 회의실 등
	인력	• 인력양성사업 운영, 고용, 장기근속, 재직자 교육, 복지포인트 등
	기획	• R&D 관련 현황/환경분석, 컨설팅, 연구회 등 지원
기술지원	기술도입	• 공공기관 기술이전, 기술거래 중개, 기술교류 등
	기술개발	• 연구조직 설립, 과학기술 및 콘텐츠 개발, 제품 운영프로그램 등
	장비활용	• 시험분석 장비 구축·운영, 고가 생산·검사장비 구축 등
	인증/특허	• 국내 및 해외 인증 취득, 특허 출원·등록 등
	공정혁신	• 공장·설비 개선, 정보시스템 구축, 스마트공장 구축·운영 등
사업화지원	시제품 제작	• 시제품 제작 장비·자금 지원 등
	실증	• 보유 제품 및 서비스의 실증 운영, 성능개선 등
	디자인 개발	• 제품 디자인, 포장 디자인, 기업 CI 등
판로지원	공공구매·마케팅	• 직접구매, 광고(홍보영상물) 디자인, 팸플렛 제작 비용(홍보) 등
	수출	• 국내외 전시회·박람회 개최 및 참가, 제품 출품·전시 비용 등
종합지원	수요맞춤형	• 컨설팅·기술개발·사업화 등 기업 수요 맞춤형 다분야 종합지원

*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인천테크노파크 홈페이지 등 참고 및 재구성

1)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중소기업은 국내 기업체 중 99.9%, 종사자 수 중 80.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시는 산업단지가 15개 입지하고 약 40.3만 개사의 중소기업이 소재하여 중소기업이 지역 경제·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은 지역.

- 인천테크노파크는 2020~2022년 3년간 2,440억 원의 지원금을 활용하여 총 422개의 기업지원사업을 운영하였으며, 같은 기간 16,320건의 기업지원을 통해 총 6,308개 기업을 지원
 - 인천테크노파크는 연평균 813억 원의 지원금을 집행하여 141개의 기업지원사업을 운영했으며, 지원사업 수 및 지원 규모(건수)는 지난 3년간 지속 증가세
 - 1년에 약 5,440건의 기업지원을 실시하였으며, 지원 건당 평균 지원 금액은 약 15.5백만 원 수준
 - 3년간 지원한 총 기업 수는 중복을 제외하고 약 6,308개 사로, '20년 2,575개 사에서 '22년 3,522개 사로 지원기업 수 역시 점차 증가
 - 인천 중소기업은 1개 기업당 평균 약 1.7건의 지원사업에 참여했으며, 기업당 평균 지원금은 약 26.4백만 원 수준으로 조사

[표 2] 인천테크노파크 기업지원사업 수행 실적('20~'22년)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평균
기업지원 사업 수(개)	128	141	153	422	141
지원금 규모(억 원)	826	772	843	2,440	813
지원건수(건)	4,238	5,800	6,282	16,320	5,440
건당 평균 지원금(백만 원)	19.6	13.4	13.4		15.5
지원기업(개)	2,575	3,324	3,522	6,308	3,140
기업당 평균 지원건수(건)	1.6	1.7	1.8		1.7
기업당 평균 지원금(백만 원)	32.0	23.2	23.9		26.4

- 인천테크노파크의 기업지원사업을 5대 분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경영지원사업이 8,156건(50.0%)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술지원사업 3,171건(19.4%), 판로지원사업 3,030건(18.6%) 등 순
 - 기업지원사업의 15개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금지원'이 3년간 총 4,947건(30.3%)으로 가장 많고 뒤를 이어 '인력' 1,790건(11.0%), '수출' 1,790건(11.0%), '공정혁신' 1,667건(10.2%) 순으로 운영되었으며, '인증/특허' 관련 지원은 130건(0.8%)으로 가장 적게 실행

[표 3] '20년~'22년 기업지원사업 유형별 지원건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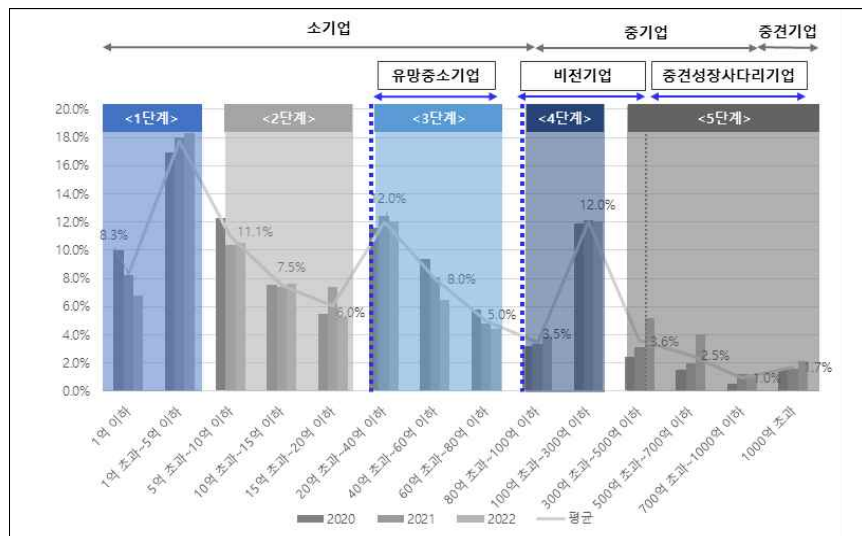
(단위 : 건, %)

구분	2020	2021	2022	합 계
경 영 지 원	1,983 (46.8)	2,687 (46.3)	3,486 (55.5)	8,156 (50.0)
자금	1,041 (24.6)	1,587 (27.4)	2,319 (36.9)	4,947 (30.3)
입지·공간	-	-	-	-
인력	506 (11.9)	621 (10.7)	663 (10.6)	1,790 (11.0)
기획	436 (10.3)	479 (8.3)	504 (8.0)	1,419 (8.7)
기 술 지 원	1,026 (24.2)	1,047 (18.1)	1,098 (17.5)	3,171 (19.4)
기술도입	44 (1.0)	98 (1.7)	69 (1.1)	211 (1.3)
기술개발	92 (2.2)	66 (1.1)	106 (1.7)	264 (1.6)
장비활용	179 (4.2)	254 (4.4)	466 (7.4)	899 (5.5)
인증/특허	60 (1.4)	15 (0.3)	55 (0.9)	130 (0.8)
공정혁신	651 (15.4)	614 (10.6)	402 (6.4)	1,667(10.2)

2) 인천시 산업 경제 분야 출연기관으로서 인천시에서 진행되는 대다수의 기업지원사업을 운영.

사업화지원		230 (5.4)	315 (5.4)	396 (6.3)	941 (5.8)
	시제품 제작	102 (2.4)	136 (2.3)	183 (2.9)	421 (2.6)
	실증	32 (0.8)	70 (1.2)	103 (1.6)	205 (1.3)
	디자인 개발	96 (2.3)	109 (1.9)	110 (1.8)	315 (1.9)
판로지원		536 (12.6)	1,437 (24.8)	1,057 (16.8)	3,030 (18.6)
	마케팅	128 (3.0)	804 (13.9)	308 (4.9)	1,240(7.6)
	수출	408 (9.6)	633 (10.9)	749 (11.9)	1,790 (11.0)
종합지원		463 (10.9)	314 (5.4)	245 (3.9)	1,022 (6.3)
	수요맞춤형	463 (10.9)	314 (5.4)	245 (3.9)	1,022 (6.3)
합계		4,238 (100)	5,800 (100)	6,282 (100)	16,320 (100)

- 기업의 성장 수준(단계)에 따른 기업지원사업 참여 기업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2020~2022년 진행된 지원사업의 참여 기업을 제조업의 매출 규모를 기준으로 하는 5단계의 성장단계로 구분³⁾
- 초기 단계인 1~2단계는 인천시 우수기업 기준 중 ‘유망중소기업(매출 20억)’을 상한선으로 설정하고, 구간 내에서 가장 높은 지원 비율을 나타내는 ‘매출 5억’을 기준으로 구분
 - 3단계는 ‘비전기업(매출 80억)’을 상한선으로 적용하여 설정하고, 4~5단계는 지원 건수의 분포 및 ‘중견성장사다리기업(매출 400억)’ 기준을 고려하여 구간을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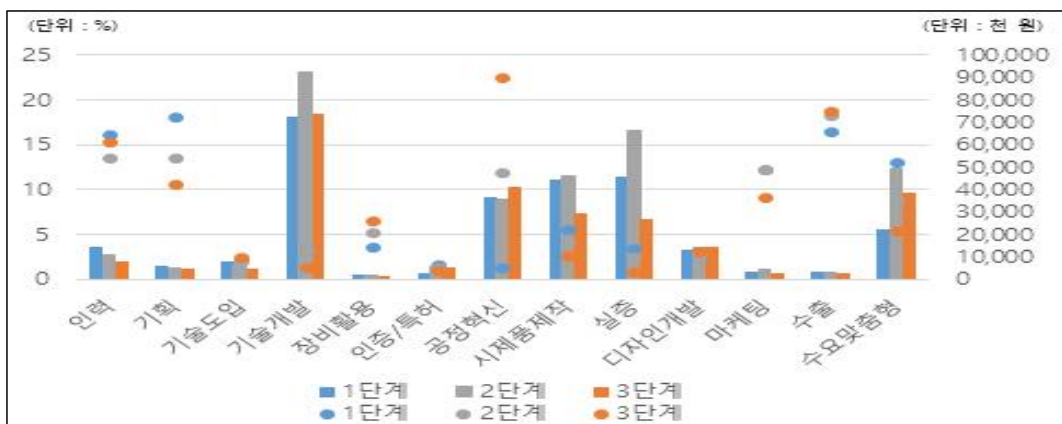


[그림 1] 인천테크노파크형 기업성장 5단계 구분

[각주표 1] 인천시 우수기업 선정 기업규모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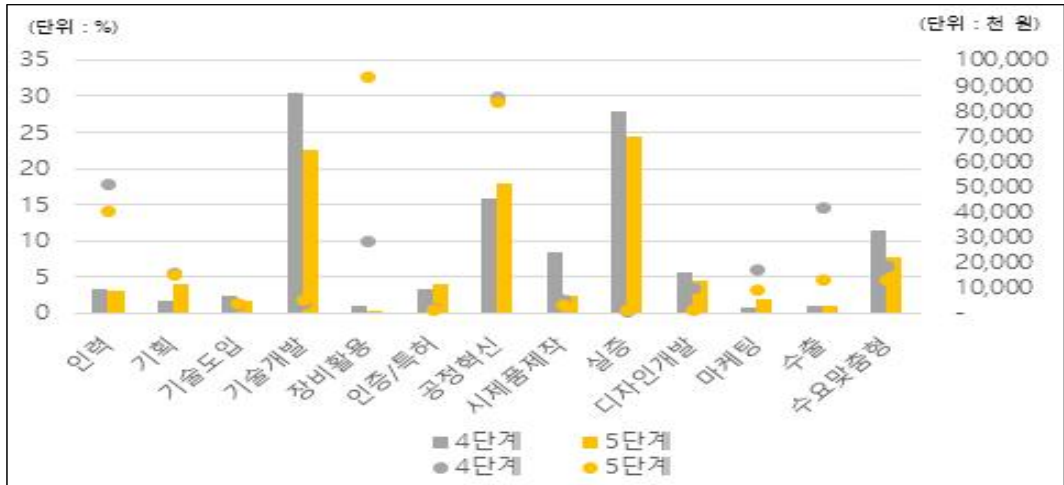
선정기준		유망중소기업	비전기업	중견성장사다리기업
매출	제조업	20억 초과	80억 초과	400억 이상
	제조업 외 업종	10억 초과	40억 초과	200억 이상
종사자 수		10인 이상	20인 이상	50인 이상
업력		2년 이상	3년 이상	5년 이상
비고		선정 후 유효기간 5년		

- 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사업 실적에 따르면 창업기업·소규모기업 등 성장 초기 단계의 경우 기업 비즈니스 모델 설계, R&D 혁신 기획을 위한 기획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장 중기 단계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품 제조 과정의 공정혁신을 위한 지원 수요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확인
- 1단계(매출 5억 이하) 기업은 주로 △기획지원(18.2%) △수출지원(16.5%) △인력지원(16.2%) 등의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케팅(12.2%) 및 수출지원은 1단계 기업의 참여 비율이 높은 편에 속하지만 1~3단계 기업에서 모두 유사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소기업 수준에서 주로 참여하는 사업으로 구분 가능
 - 시제품 제작·기술개발·실증 사업은 참여 비율이 낮은 편이나, 평균 지원금은 △기술개발(72,615천 원) △실증(45,792천 원) △시제품 제작(44,167천 원) 순으로 전체 지원사업 중 높은 수준
 - 2단계(매출 5~20억) 기업 역시 △수출지원(18.3%) △기획지원(13.6%) △인력지원(13.5%) 등의 사업에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1단계 기업의 지원사업 참여유형과 비슷한 양상
 - 다만 1단계와 비교했을 때 2단계부터는 기획지원 사업의 참여 비중이 감소(-4.6%p)하고, 공정혁신 지원사업의 참여 비율이 크게 증가(+10.6%p)
 - 3단계(매출 20억~80억) 기업의 경우 1~2단계 및 4~5단계 기업지원사업 참여유형의 특성이 동시에 나타나, 공정혁신지원(22.5%) 및 수출지원(18.7%)에 대한 참여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
 - 매출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중소·중견기업 수준에 해당하는 4~5단계 기업의 경우 지원사업 유형별 참여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
 - 4단계 기업은 △공정혁신(30.0%) △인력지원(17.9%) △수출지원(14.6%) 등의 사업에 주로 참여하고 있으며, 5단계 기업은 △장비활용(32.7%) △공정혁신(29.3%) △인력지원(14.1%) 등을 주로 이용
 - 5단계 기업의 수출지원사업 참여 비중은 4단계 대비 9.8%p 낮은 4.8% 수준이나, 이는 수출지원사업의 경우 기업의 사업 참여가 직전년도 수출액 규모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
 - 4~5단계 기업이 다수 참여하는 인력지원 사업의 경우 모든 기업성장단계에서 수요(참여 비율)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며, 장비활용지원사업은 기업의 성장단계가 높아질수록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거나 조건에 따라 시험을 반복하는 사업의 특성상 지원 건수를 기준으로는 정확한 성장단계별 수요 파악이 곤란



* 주 : 막대그래프는 사업별 평균 지원 금액(오른쪽), 점그래프는 사업별 참여 비율(단계별 총합 100, 왼쪽)을 의미

[그림 2] 1~3단계 기업 지원사업 참여 비율 및 평균 지원금 현황



* 주 : 막대그래프는 사업별 평균 지원 금액(오른쪽), 점그래프는 사업별 참여 비율(단계별 총합 100, 왼쪽)을 의미

[그림 3] 4~5단계 기업 지원사업 참여 비율 및 평균 지원금 현황

- 2020년에 인천테크노파크가 지원했던 기업들의 매출 성장 추이를 살펴보면 지원사업 수혜기업의 약 73.9%가 매출액이 증가했으며, 동 기업들의 2020~2021년 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16.0%로 인천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 매출액 증가율을 1.6%p 상회
- 2020년도에 지원사업에 참여한 1,676개 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액 성장 추이를 모니터링한 결과, 1,238개 기업(73.9%)은 매출액이 증가
 - 매출액 증가기업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 기준으로 구분하면 △10% 이하(29.3%) △10~20%(24.1%) △20~30%(16.5%) 순
- 지원사업 수혜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2020년 147.9백억 원에서 2022년 201.5억 원으로 증가하며, 연평균 16.7% 증가세를 기록
 - 2020~2021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지원사업 수혜기업의 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약 16.0%로, 같은 기간 인천시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 증가율인 14.4%와 비교하여 1.6%p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

[표 4] 2020년 지원사업 수혜기업의 2020~2022년 매출액 증가 추이

(단위 : 백만 원, %)

구분	2020	2021	2022	연평균 증가율
평균 매출액	14,790	17,157	20,148	16.7

- 정부 및 지자체의 기업지원사업의 경우 대상 기업의 특성 및 성장단계에 따라 수요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인천시는 기존의 기업지원사업 운영실적 데이터를 활용한 성장단계별 기업지원사업 모델을 구축하여 시에서 운영하는 기업지원사업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
- 인천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지원사업 운영 시 다양한 사업에 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업종별 기업성장단계별 지원사업 모델 마련이 요구
 - 현행 기업지원사업은 운영하는 주체 또는 각 지원사업별로 참여 가능 대상 기업의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어 지원사업 수요가 있는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확인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존재
 - 이에 과거 운영했던 기업지원사업의 실적 및 성과 모니터링을 통해 인천시에서 통용되는 업종별 기업성장단계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기준에 따른 단계별 특화 지원사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면 지원사업 수요기업의 편의성 및 참여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또한 지원사업 수혜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경영현황 및 성장 추이 모니터링을 통해 기업지원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파악하고, 업종별·성장단계별 맞춤형 기업지원 로드맵을 구성하여 보다 연속적이고 효율적인 기업지원사업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
 - 인천테크노파크 기업지원사업 데이터에 따르면 성장 초기의 1~2단계의 기업은 기획·인력·시제품·마케팅·수출 등 다각적인 지원이 종합적으로 필요한 반면, 중·후기인 3단계 이상의 기업은 공정혁신, 생산 인프라 확충 등 기업의 투자를 뒷받침할 지원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
- 향후 인천시의 기업지원사업 운영 기관에서 지원사업 수요기업에 적합한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개별화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규 지원사업의 기획 또는 기존 사업의 개선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기업지원사업의 실적 및 성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

제조 > 기계장비산업 시장 동향



#기초산업기계 #산업기계 #정밀기계 #기계요소공구 및 금형

- 2023년 12월 기준 국내 기계장비산업 수주액은 전년동월대비 5.9% 증가, 전월대비 9.0% 감소한 58,116억 원으로, 국내, 대리점, 해외 수요가 모두 전월에 비해 감소하며 약보합세
 - 국내 수요는 2023년 9월 이후 3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였으나, 대리점 및 해외 수요의 부진이 지속되며 기계장비산업의 총수주액이 감소
 - 대리점 수요가 꾸준히 전년동월대비 감소하는 가운데 해외 수요의 최근 6개월 평균 전년동월비 증감률 역시 -6.2%의 낮은 수준을 보여, 지난 6개월간 기계장비산업 수주액의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의 평균은 약 -1.2%로 감소세
 - 2023년 4분기 기계장비산업 총수주액은 179,040억 원으로 전기 및 전년동기대비 각각 7.7%, 5.4% 증가

[표 1] 국내 기계장비산업 수요자별 수주액 추이

(단위 : 억 원, %)

구분	'23.05	'23.06	'23.07	'23.08	'23.09	'23.10	'23.11	'23.12
총수주액 (증감률)	60,280 (0.1)	80,497 (25.3)	57,273 (-1.8)	52,800 (-17.5)	56,164 (-4.2)	57,042 (1.8)	63,881 (8.4)	58,116 (5.9)
국내 (증감률)	28,163 (-2.2)	31,760 (1.4)	29,478 (5.3)	25,771 (-22.2)	25,274 (-7.3)	27,973 (16.4)	32,014 (12.1)	30,661 (21.5)
대리점 (증감률)	5,450 (-15.3)	6,068 (-13.5)	5,639 (-16.9)	5,000 (2.4)	4,732 (-17.8)	5,265 (15.7)	5,261 (11.8)	4,108 (-0.3)
해외 (증감률)	26,666 (6.7)	42,669 (64.8)	22,156 (-6.0)	22,028 (-15.2)	26,159 (2.3)	23,805 (-13.2)	26,607 (3.5)	23,348 (-8.5)

* 자료 : 통계청, '기계수주동향조사' 참고 및 재구성

* 주1 : 최근 2개월 수치는 잠정치로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로 표기

2 : 각 자료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전국) 2023년 12월 기준 국내 기계장비 생산지수는 연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업황이 개선되었으나, 수출은 약보합세가 지속
 - (생산지수) 전국 기계장비 생산지수는 전월대비 17.8% 증가, 전년동월대비 7.0% 감소한 125.7 수준으로, 2023년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 다만 기계장비 생산지수가 2021년 하반기 이후 등락을 반복하며 감소하고 있으며, 출하지수에 비해 재고지수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

- 2023년 12월 기준 재고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6.3% 감소한 127.3, 출하지수는 전년동월대비 7.6% 감소한 122.7 수준으로, 2023년 하반기 들어 기계장치 출하지수와 재고지수의 격차가 점차 감소
- **(품목별 수출액)** 2023년 12월 국내 기계장비 수출액은 전월대비 4.0% 감소, 전년동월대비 0.1% 증가한 488.3천만 달러 수준⁴⁾으로 약보합세가 지속
 - 기초산업기계 수출액은 전월대비 11.6%, 전년동월대비 0.2% 감소한 144.9천만 달러. 산업기계 역시 전월대비 6.2%, 전년동월대비 5.2% 감소한 163.9천만 달러로 지난 11월 수출액에 비해 다소 감소하여 기계장비 총수출액 감소의 요인으로 작용
 - 기계요소공구 및 금형 부문은 전월대비 3.8% 증가한 80.6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23년 3월 이후 동 품목의 수출이 다소 감소했던 것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로는 1.2%, 감소하며 약보합세
 - 반면 정밀기계 수출은 전월대비 7.4%, 전년동월대비 12.3%, 증가한 98.8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2023년 이후 수출 상승세가 지속
- **(인천)** 인천의 2023년 12월 기계장비 생산지수는 152.0 수준으로 기계장비 생산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수출액은 예년에 비해 소폭 개선세
 - **(생산지수)** 2023년 12월 기준 기계장비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0%, 전월대비 0.7% 증가한 152.0으로, 지난 9월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지속
 - **(품목별 수출액)** 인천의 기계장비 총수출액은 전월대비 10.4% 감소, 전년동월대비 0.4% 증가한 약 48.6천만 달러로, 하반기 들어 기계장비 수출이 다소 주춤한 상황
 - 기초산업기계와 산업기계는 각각 전월대비 26.1%, 12.2%, 전년동월대비 2.0%, 18.8% 감소하며, 2023년 3월 이후 다소 수출이 부진한 상황이 지속
 - 정밀기계 수출액은 9.3천만 달러로 전월대비 12.7%, 전년동월대비 89.2% 급증했으며, 기계요소공구 및 금형의 경우 전월대비 2.5%, 전년동월대비 9.7% 증가한 7.8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부진했던 수출이 2023년 6월 수준으로 회복

[표 2] 국내 기계장치 산업생산지수 및 증감

지역	항목	'23.09	'23.10	'23.11 (p)	'23.12 (p)	'22.12	전월비 (%)	전년 동월비 (%)
전국	기계장치 제조업	102.3	91.9	106.7	125.7	135.1	17.8	-7.0
인천	기계장치 제조업	109.1	130.2	150.9	152.0	150.5	0.7	1.0

*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시도/산업별 광공업생산지수(2020=100)' 참고 및 재구성

* 주1 : 산업생산지수 파악에 활용한 항목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반으로 구분하였으며,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의 자료를 이용

2 : 생산지수는 2020년을 기준으로 하는 원지수를 이용하였으며, 최근 2개월 수치는 잠정치로 추후 변동 가능

4) 이하의 기계장비 수출액은 기초산업기계(MTI71), 산업기계(MTI72), 정밀기계(MTI73), 기계요소공구 및 금형(MTI75)의 수출액 합산 값을 의미.



[기초산업기계(MTI71)]



[산업기계(MTI72)]



[정밀기계(MTI73)]



[기계요소공구 및 금형(MTI75)]

* 자료 : K-stat 무역통계 '국내 품목 수출입 통계' 자료 참고 및 재구성

* 주 : 수출 금액은 1,000\$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그래프 좌측은 전국 기준, 우측을 인천 기준으로 작성

[그림 1] 기계장비 품목별 수출 동향(2023.12)

[부록] 주요 산업 경기지표(2023.12 잠정)

제조업 생산지수	전국						인천					
	생산		출하		재고		생산		출하		재고	
	지수	증감	지수	증감	지수	증감	지수	증감	지수	증감	지수	증감
반도체	138.5	35.5	152.4	57.4	149.5	6.4	130.6	-0.4	136.3	1.9	121.9	-22.2
자동차	130.9	-0.8	126.6	-2.2	114.2	6.3	128.7	4.0	120.4	-5.3	107.0	23.6
기계장비	125.7	-7.0	122.7	-7.6	127.3	-16.3	152.0	1.0	142.5	-8.8	147.5	40.9
바이오-의약	124.6	1.0	142.4	12.9	-	-	118.8	-11.1	181.3	61.4	-	-
바이오-화장품	87.5	-0.3	89.0	1.8	104.6	-4.0	101.4	-3.8	95.1	0.8	116.1	10.4
건설 수주액 (억원, %)	전국						인천					
	공공		민간		공공		공공		민간		민간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건설	183,659	138.3	129,225	-16.4	4,228	17.4	4,271	-51.8				

*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및 '건설경기동향조사'의 산업별 통계 참고 및 재구성

* 주1 : 각 산업의 통계 원자료 참고 시 항목명은 순서대로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건설수주 등

2 : 생산지수는 2020년 기준 원지수를, 건설수주액은 종합건설업체의 건설수주액 경상가격을 이용해 작성되었으며, 각 지표의 증감은 전년 동월 대비 비율로 표기

3 : 각 자료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수출

중기부, 수출 판로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부는 오는 2월 13일까지 중소기업의 수출 판로지원을 위해 수행하는 ‘수출이용권(바우처) 지원사업’ 및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할 계획
 - ‘수출이용권사업’은 협약 기간 내에 디자인개발·해외인증·홍보 등 14가지 해외 마케팅 서비스와 원하는 지원기관을 선택해 정부지원금 및 기업분담금으로 구성된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해외 판로 지원사업
 - 2024년 수출이용권사업은 중소기업을 전년도 수출 실적을 기준으로 △내수 △초보(1,000~10만 달러) △유망(10~100만 달러) △성장(100~500만 달러) △강소(500만 달러 이상) 등 5단계로 나누어 최소 3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할 예정으로, 1차 모집에서 약 2,400여개사를 선정할 계획
 -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는 글로벌 강소기업, 수출유망 중소기업, 수출 두드림기업 지정제도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제도로, 지난해 수출액 10만 달러 이상인 중소기업 중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정해 20여 개 기관에서 제공하는 해외진출 지원사업과 각종 금융지원을 우대할 예정
 - 양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월 13일까지 수출이용권 누리집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누리집(강소기업 프로젝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문의는 수출바우처 지원센터를 통해 안내 가능

교통

정부·지자체, 서민층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중교통 지원 협력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와 수도권 지자체가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청년 및 서민층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을 마련하여 올해 상반기 내 시행할 예정
 - 국토부는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개편하여 전국 17개 시도에서 월 15회 이상의 정기적인 대중교통 이용 승객에게 대중교통비의 일정 비율을 환급하는 K-패스를 오는 5월부터 시행할 계획
 - 정부 정책에 발맞춰 인천시와 경기도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청년층 기준 확대 및 노약자 추가 혜택, 지원상한 폐지 등을 통해 K-패스의 혜택을 강화한 ‘인천 I-패스’ 및 ‘The 경기패스’를 마련하여 5월부터 시행할 계획
 - 한편 서울시는 지난 1월 27일 월 6.2~6.5만 원의 금액으로 서울시 내에서 따릉이, 버스, 지하철 등 다양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을 시작
 - 각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은 개인의 대중교통 이용 패턴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국토부와 지자체는 사업 활성화 및 개선을 위해 협력을 강화할 예정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가 2028년까지 쌀 가공산업의 시장 규모 17조 원, 수출 4억 불 달성을 목표로 하는 내용의 「제3차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24~’28)」을 발표
 - 동 계획에 따르면 쌀 가공산업의 시장규모 확대를 위해 △미래 유망품목 집중육성 △국내외 수요기반 확대 △산업 성장기반 고도화 등 3개 주요 과제를 중점 추진할 예정
 - 국내외 식품 소비 유행을 고려하여 ①간편함(가공밥, 냉동떡 등) ②건강함(비건, 고령친화식품 등) ③세계화(떡볶이, 김밥 등) ④뉴트로(쌀 증류주, 약과 등) 등 쌀 가공식품의 특징을 중심으로 한 마케팅과 가루쌀의 제품화·유통·소비기반 마련 등을 통해 주요 10대 수출 품목*을 집중지원
 - * 간편 가공밥·죽, 도시락·김밥, 떡볶이, 냉동떡, 쌀 증류주, 쌀 음료, 쌀국수, 혼합면, 쌀빵, 쌀과자 등
 - 해외의 글루텐프리 인증을 받은 인증기업을 육성하고, 쌀 가공식품 체험 프로그램, 구매설명회 등을 통해 구매 접점 및 경험을 증대하여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판로를 마련
 - 가공용 쌀 정부양곡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원료곡의 민간조달을 활성화하여 원료 공급을 안정화하고, 쌀 가공산업 관련 기술 R&D 강화 및 시설 개선 등을 통해 산업 성장 기반을 고도화
- 농식품부는 금번 계획을 통해 쌀 가공식품의 국내외 판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현재의 시장 성장세를 강화할 계획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자원부가 2024년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특성화대학원 추가·신규 지정을 통해 첨단전략산업 분야 석·박사 고급인재양성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3월 14일까지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에 참여할 대학(원)을 모집
 - 특성화대학원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근거해 첨단산업 전문인력의 수준 및 규모를 증대하기 위해 지정·지원하는 것으로, △수요기반 R&D 중심 교육 △현장밀착교육 △채용매칭 및 취업컨설팅 등을 지원
 - 2024년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중 반도체(3개교) 부문을 추가 지정하고, 배터리(3개교), 바이오(1개교), 디스플레이(1개교) 부문을 신규 지정하여 첨단산업 석·박사 고급인재 양성을 본격 확대할 계획
 - 금번 지원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교육환경 구축, 교육과정 개발·운영, 기업 연계 산학프로젝트 추진비 등을 포함하여 각 대학당 연간 30억 원 내외의 지원금을 최대 5년간 지원
 - 지원대상 대학(원)은 신청대학의 보유역량, 대학원 운영계획, 산학협력 활성화 계획, 파급효과, 첨단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과의 산학프로젝트 추진계획 등을 평가하여 선정할 예정

#행정안전부

- 지난 1월 25일 행정안전부와 금융감독원, 국내 9개 카드사*, 여신금융협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가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착한가격업소 이용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등 착한가격업소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협의

* 신한, 롯데, 비씨, 삼성,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 착한가격업소는 사업자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행안부와 지자체가 지정·운영한 제도로 세제 혜택 및 필요 물품 등을 지원해왔으며, '24년에는 지난해보다 확대된 18억 원의 지원금을 활용해 민간플랫폼과 협업하여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
- 금번 협약에 따라 앞으로는 국내 9개 카드사의 카드로 착한가격업소에서 1만 원 이상 결제하면 1회당 2,000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각 카드사는 2월 중 상세 혜택 제공 방식을 확정(각 카드사별 상이)하여 캐시백, 청구할인, 포인트 등 다양한 형태로 혜택을 제공할 예정
- 한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착한가격업소 24개 업소에 업소당 400만 원 한도의 간판·집기·비품 교체 및 수리 등을, 소상공인연합회는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신규 가맹점 발굴을 지원하고, 행안부와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는 기관 간 협력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행정지원을 수행할 예정

#금융위원회

- 특례보금자리론이 종료됨에 따라 '24년 1월 30일부터는 서민 및 실수요층의 자금 수요 지원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개편된 보금자리론이 신규 출시되어, 연간 10±5조 원 규모로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
- 개편된 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 수준의 지원 요건을 유지하며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완화된 요건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금리는 기존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에 비해 낮은 수준을 적용
 - 또한 '25년 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장애인, 다자녀 등 사회적 배려층과 저신용자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일반가구 대상으로도 시중은행의 절반 수준인 0.7%를 적용할 계획

지원요건	일반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사기 피해			
			1자녀	2자녀	3자녀				
소득	7천만 원	8.5천만 원	8천만 원	9천만 원	1억 원	-			
주택가격	6억 원					9억 원			
대출한도	3.6억 원				4억 원				
LTV	70%					100%			
금리(%)	기본금리	전세사기 피해	사회적 배려층				신혼가구	신생아 가구	저소득 청년
			장애인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			
적용금리	4.2 ~ 4.5	3.2 ~ 3.5	3.5 ~ 3.8				4.0 ~ 4.3	4.0 ~ 4.3	4.1 ~ 4.4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단지의 디지털화, 저탄소화를 촉진하기 위해 오는 3월 12일까지 “24년도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의 신규 사업자를 모집
 -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은 디지털 전환(6개)과 저탄소 전환(2개) 분야의 총 8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업부는 향후 4년간 총 2,010억 원의 국비를 투입해 산업단지 전환을 추진할 계획
 -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는 스마트 물류플랫폼,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센터, 초거대 제조AI 서비스개발 및 실증 등 6개 사업에 1,000억 원을 투입하고, 저탄소 전환 분야에서는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및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에 1,010억 원을 투입할 예정
 - 사업 신청 대상단지에 포함되는 인천지역 산업단지는 인천주안부평(스마트물류, 스마트제조, 공정혁신, 스마트에너지, 에너지자급자족) 및 인천남동(공정혁신) 등 2곳으로, 금번 촉진사업 통합공모의 신청 기간 및 대상, 지원 조건 등은 산업부 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금융위원회

- 지난 '23년 5월 구축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대환대출 인프라)'의 운영 범위가 확장되어, '24년 1월 31일부터는 신용대출 및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전세자금대출 상품도 갈아타기 서비스를 제공
 - 대환대출 인프라는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 및 경쟁 촉진을 통해 국민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구축한 대환대출 서비스 플랫폼으로, 이를 이용하면 현재 보유 중인 대출과 타 금융사의 대출상품을 온라인으로 비교하여 대출 갈아타기를 실행 가능
 - 금번 운영범위 확장을 통해 앞으로는 18개 은행 및 3개 보험사*에서 받은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을 14개 금융회사의 보다 낮은 금리의 신규 전세대출로 갈아탈 수 있을 예정
 - * (18개 은행)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기업, 국민, 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제주, 케이, 카카오, 수협, 토스, 시티 / (3개 보험사) 삼성생명, 삼성화재, 롯데손보
 -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대출 갈아타기는 기존 전세대출은 받은 지 3개월 이상~12개월 또는 기존 전세계약 만기 2개월 전~15일 전에 이용할 수 있으며, 대출이 연체 중이거나 법적 분쟁이 있는 경우 갈아타기가 불가능
 - 대출 갈아타기의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이내로 제한되며,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만 보증기관별 한도 내에서 임차보증금의 증액분만큼 신규 전세대출의 한도를 증액 가능
 - 또한 기존 대출의 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탈 수 있으며, 저금리 정책금융상품이나 지자체와 금융사 간 협약을 통해 취급된 대출은 갈아타기가 불가

참고 자료

- 인천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s://itp.or.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s://www.mss.go.kr>)
-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 I. 중소벤처기업부편」, 2024.01.
-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 II. 유관기관편」, 2024.01.
- 국가통계포털(KOSIS), '기계수주동향조사'.
-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동향조사' 및 '건설경기동향조사'.
- K-stat 무역통계, '국내 품목별 수출입 통계' 및 '국내 지역별 수출입 통계'.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중기부, 중소기업 2400개사에 맞춤형 수출 서비스 종합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2024.01.22.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중교통비 지원 혜택 커진다…6만원대 무제한·교통비 환급”, 국토교통부, 2024.01.22.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냉동김밥 등 쌀가공산업 2028년까지 17조 원 규모로 키운다”, 농림축산식품부, 2024.01.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반도체·배터리·바이오 특성화대학원 8곳 신규 지정…인재 양성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2024.01.24.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착한가격업소서 1만원 결제 시 2000원 할인받는다”, 행정안전부, 2024.01.25.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새 보금자리론 30일 출시…서민·실수요자에 혜택 집중”, 금융위원회, 2024.01.25.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산업단지 디지털·저탄소화 지원…4년간 국비 2010억 투입”, 산업통상자원부, 2024.01.30.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31일부터 모든 주택 전세대출 온라인서 갈아탄다”, 금융위원회, 2024.01.30.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4-3호(2024.02.09)

발 행 처 인천연구원
발 행 일 2024년 02월 09일
주 소 (22711)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전 화 032-260-2600
홈페이지 www.ii.re.kr

본 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으로 연구원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본 리포트의 저작권은 인천연구원에 귀속되며, 원고의 무단전재, 복제, 배포 등
저작권 전반에 관한 침해 행위를 금합니다.